

동국, 북악·남산에서 포효하다



민족동국의 4·19 ... "이승만은 하이히라." 독재와 부정으로 얼룩졌던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가져온 4·19혁명. 그리고 그 최선두에 섰던 동국인들.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동국은 선배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서울캠과 경주캠에서 각각 등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양캠에서 모두 4천5백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4·19혁명 39주년을 기리는 제 30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북한산 일대에서 열렸다. 교수, 직원, 학생 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오전 9시 수유리에 위치한 4·19 국립묘지에 집결, 4·19혁명 기념식을 갖고 각 팀별로 출발했으며 진달래능선을 지나 대동문, 행궁지를 경유해 북한산성 매표소로 내려오는 코스를 등반했다.

오후 4시경에는 북한산성 매표소 주차장에 모여 등산대회를 정리하고 각 팀의 장기자랑과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대회 30회를 맞아 추첨을 통해 30주년 행운상으로 금강산 관광티켓이 준비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4인조 최우수상을 받은 체육교육학과 98년 팀이 금강산 관광티켓 행운상에도 당첨이 되어 많은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날 행사에서 송석구 총장은 "선배들의 4·19 정신을 이어가는 훌륭한 전통이 영원히 빛나"며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과 연구로 밤을 지새우는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앞서는 대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내현 부총학생회장은 "민족동국이 4·19에서 최선두에 서서 이 땅의 민주를 위해 몸을 바쳤다"고 전제한 뒤, "북한을 아직도 적으로 여기고 한층권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39년 전 선배님들처럼 열심히 투쟁해서 이적규정을 철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에서는 제19회 4·19혁명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 약 1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주 남산일대에서 개최됐다. 오전 10시 통일전을 출발해 약 수터, 정상, 전망대, 포석정, 삼문을 거쳐 진행된 이번 등산대회의 수상팀을 살펴보면 △최우수상=가정교육학과(가교1) △올림픽진상=의대교육과(수퍼크린), ROTC(B), 컴퓨터정보통신학부(야)395

△연꽃상=미술학과, 금강생활관(22), 사회복지학과(159) △최다참가상=사회체육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부(주간), 금강생활관, 의과 △자연보호상=교육방송국(미래), 사회체육학과(26), 전산정보학부 △코끼리상=정각원, 달빛사냥, 간호1004(3) △노조특별상=철학(그냥), 관재과(관재팀) 등이다. 대학부

4·19혁명 39주기 추모제 오늘 오전 10시 동우탑에서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김효중 총학생회장, 4·19동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39주기 추모제가 진행된다.

4·19혁명 39주기 추모제 오늘 오전 10시 동우탑서

오늘(19일) 오전 10시 동우탑에서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김효중 총학생회장, 4·19동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39주기 추모제가 진행된다.

간호학과 상위 25% △불교아동학과 상위 40% △야간대학 상위 50%로 모집기준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양화되었고 자격기준은 완화되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0학년도 모집단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주요대학이 교육부의 권장지침에 따라 모집단위를 광역화하고 있어 본교 또한 기존의 학부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모집단위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후 학내 의견수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알림

중간고사 때문에 4월 26일자와 5월 3일자는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1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한총련 대대회 원천봉쇄로 난항

학생·시민 등 다수연행 ... "평화적 개최 보장해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홍익대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여전히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학생의 선거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구성되기도 않은 7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해오던 검찰은 서울지역 주요대학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대대회 장소인 홍익대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참가자 전원 구속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익대 주변에서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며 타 학교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지지방문을 하려는 재야단체 인사들의 출입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었으며, 지난 16일에는 민가협 소속 어머니들이 학

교진입을 시도하다 진경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탄압이 계속되자 한총련은 평화적 대대회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5차례의 기자회견(17일 까지)을 가졌다. 여기서 한총련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 △한총련 이적 단체 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위반 전철 △민중운동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여전히 강경한 탄압일변도로 돌아가 불심검문과 원천봉쇄는 계속되었으며, 17일 오후 7시경에는 신촌에서 대대회 장소인 홍대로 오려는 범민련,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서청협 등 사회단체 사람들이 30분간 둘러싸며 흥대진입을 저지했으며, 오후 8시경에는 정문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끝에 2백여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탄압에도 한총련은 기존의 방식대로 평화시위를 진행했으며, 화염병대신 물풍선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17일 오후 5시경에는 김일성 찬양내용의 빠리가 뿌려지기도 했다. 이에 한총련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의 용공해조작으로 98년 영남대에서도 쓰였던 낡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권공대위는 "현 정부는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면서 오히려 애국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변혁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해 온 역할과 활동을 불법으로 왜곡하여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대회의 평화적 성사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사회부

2000학년도 입학 전형 학점

인문·자연계 교차가능

추천전형도 대폭확대 ... "모집단위 논의 필요"

본교 200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준이 확정됐다. 정시모집의 전형일자는 서울 '나'군, 경주 '나'군이며 인문·자연계의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경주캠퍼스는 모집단위별로 수능성적 전 영역 중 2개 영역만 지정하여 반영한다.

정시모집 전형 요소 및 반영비율을 보면 서울캠 주간 인문계열은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5%, 논술 3%, 면접 2%이며 자연계열은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8%, 면접 2%이다. 경주캠은 △수능성적 60%, 내신성적 40%(사범대는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8%, 면접2%)를 반영하여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별전형은 장기취업자를 위한 수시모집,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전반기 특차모집, 수능성적만으로 이뤄지는 후반기 특차모집으로 나뉘어 진다. 수시모집은 35세 이상·직장

경력 5년 이상의 취업자 1백6명(서울 82명, 경주 24명)을 내신 성적 30%와 면접 70%로 선발한다. 전반기 특차모집은 각분야 특기자 선발, 외국어우수자, 내신성적 우수자, 실업계 고교 출신 동일전공자 전형, 학교장 추천·불교계관련 추천 등 다양한 전형유형이 생겼으며 추천전형은 대폭 확대되었다.

수능성적만으로 실시되는 후반기 특차모집은 전형유형이 지난해와 같다. 특차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서울캠의 경우 △인문계열 상위 8%(경향행정학과 4%) △자연계열 상위 10% △사범대 9%(체고는 25%, 가교 제외) △예체능계열 연극영상학부 이론·연출 전공은 상위 4%이다. 경주캠의 특차 일반전형의 경우 △의예과 상위 4% △한의예과 상위 2% △관광경영학부 상위 20%로 지난해와 지원자격이 같으며 △인문·사회계열 상위 50% △자연계 상위 45% △

지면안내

Home Coming Day = 고향찾아오는 날(?) 7면

즐겁한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한바탕 축제를 벌인다는 Home Coming Day. 외국의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이날'의 유래와 의미, 국내대학의 현황 등을 알아보고 현재 본교에서 추진중인 상황을 진단체 본다.

서울캠, 등협 타결 2면

미국의 유고공습과 민족문제 4면

'4·19'와 '대학'의 관계 6면

보리수

스승을 찾아라

정성본(불교대 불교학부)

인간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스승과 선배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출가수행의 길에는 특히 눈 밝은 스승과 어진 도반(道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대로 배운대로 익힌대로 풀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되어있다. 스승(선지식)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진실과 깨달음과, 행복만 인생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스승인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각자 좋은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눈 밝고 인격 높은 훌륭한 스승을 찾도록 강조하고 있다.

'혈맥론'에도 '스승을 찾아라. 빨리 좋은 스승을 찾지 못하면 일생을 허송하게 된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불법을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 '스승 없이 깨치는 자는 외도(外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의 지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훌륭한 스승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이를 꽃피우지도 못하고 썩어버리고 만다. 또한 무상(無上)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배움의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러한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말기 때문이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서서 것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스승의 학문과 인격을 통해서 자신이 스승처럼 되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스승의 인격을 접하여 전인교육(全人教育)적인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몸으로 직접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스승의 학문과 기술, 인격을 배우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것은 스승의 영향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향은 위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힘입력에 의해서 크기와 심도(深度)가 결정되는 것이다. 종소리는 종을 치는 사람의 힘에 따라 그 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대통령님,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지난 97년 야당총재 시절 전국의 대학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질책과 격려,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학생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왜 지금에 와서는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한총련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7천만 겨레를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새봄에 태어날 수 있는 논의를 하는 공간인 대의원대회가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정우식 동문돕기 모금 행사

22일부터 하루주점·영화제 등 개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찬정·수교4)는 정우식동문돕기모임회와 공동으로 정우식씨를 돕기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다시움을 희망을 위하여'라는 구호로 모금행사를 벌인다.

먼저 오는 22일 오후 2시 다함관에서 하루주점이 벌어지며 이와 함께 24일까지 중강당에서 '중암역', '브레스트 오브' 등을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박찬정 학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단발성의 모금 운동이 아니라 학내집회에 모금함을 돌리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고 행사를 취지를 밝혔다.

"남산가기가 편해져요"

상록원에서 남산순환도로까지 목재계단 설치

관리처(처장=김중옥) 시설과는 상록원 뒤편에서 남산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목재 계단 공사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

그 동안 남산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이용객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급한 경사 △비가 올 경우 흠뻑길로 변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목재 계단 공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점 및 학생전용식당으로 운영할 동국관 지하 식당 공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현재 도색 및 천장보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쯤에 끝날 예정이다. 동국관 수업 진행 중 들리는 공사소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관리처 관계자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여쩔 수 없었다"며 "가능한 수업시간을 피해 공사를 마칠 것이다"고 전했다.

취업과, 인턴 근무기관 방문

급료지급·출석상황점검 등 홍보활동차

취업과(과장=김병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지원 인턴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근무기관을 방문한다.

현재 취업과는 인턴 사업체의 급료지급과 출석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 근무 상황을 파악해 정규직 발탁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과의 한 관계자는 "본교생들의 정규직 발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승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업과는 지난 12일 대학연구실현실 단계유급 연구조교(이하 단계유급조교)로 서울캠 30명, 경주캠 20명을 각각 선정했다.

단계유급조교는 교육부에서 고학력 미취업자의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공대, 공간소위원회 구성

자치공간문제 의견수렴 역할 기대

공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태하·산공4)는 지난 14일 오후 6시 원흥관(E402)에서 공과대 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안건은 공과대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의견수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간소위원회' 구성이었으며 공과대 자유교양 합의 사항과 학교양 일방통행에 대한 연서가 함께 보고되었다.

또한 정산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단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기구와 학원자주에 대한 내용으로 '교양학교'를 개최했다.

'제2도서관' 올해안에 설계 진행

등협서 전격 결정... 분할납부·대학운영위 구성·장학금 확충 등도 타결

그 동안 본교 숙원 사업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도서관 확충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에서 제시했던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난 12일 총장실에서 열린 송석구 총장과 김호중 총학생회장의 면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함께 학내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월 개강 이후 진행되어온 등록금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는 올해 안에 도서관 신축을 위한 설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제2도서관의 신축공간으로는 명진관 옆 임시건물인 강의동부지가 가장 유력하며, 다함관 건물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은

영원위원회는 그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학교당국과 총학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구성이후에는 모든 요구사항을 대학운영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등록금 분할 납부와 장학금 확충문제 등도 논의 되었다. 세부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등록금 분할 납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1차는 1차 등록기간에 등록금의 50%를 수납하고 2차는 학기의 1/2일 때 등록금의 나머지를 수납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원 10% 이상의 등록금에 상당하는 학비감면 혜택 부여 △99학년도 1학년 1학기부터 과대표 장학금을 지급하되, 1학기 성적과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2학기에 함께 지급하도록 하며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학에서 제기했던 학생경비

20%확보 요구안에 대해서도 △실현실습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각 대학 학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험실습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각 학과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에는 컴퓨터를 지원 △교수총원과 교양강좌 확충문제 또한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총학생회에서 취합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설하도록 하며 필요시 담당부서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부제 위원회 건설에 대해서는 전공교수와 단과대 학장을 통한 의견수렴 작업 후 학교당국과 논의하고 학내 게시물은 지정된 구역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협의와 관련해 학생처와 총학의 관계자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사항들도 있었지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총학은 지난 13일 열린 민족통일대회이후 총무로 일대에서 '한총련대의원대회 보장과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대한극장 앞에 모인 학생들이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총학은 내일(20일)부터 이틀동안 합의사항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해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학교당국과 재협상을

발의 예정이어서 총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자"

오는 23일 총학생회 해오름마당 진행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오는 22·23 양일간 '99년을 살아가는 민족통일 청년의 이름으로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일구기'를 대동한마당을 기치로 내걸고 만해광장에서 해오름 마당을 개최한다.

22일 오후 6시 백상응원단의 공

연으로 시작되는 전야제는 △인쇄노조, 재전농민회, 공안마을, 서울지하철 노조, 한국통신노동자의 연대발언으로 이뤄지는 민중연대 한마당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한마당 △희망세 초청공

연 △대동놀이와 불사다리를 넘는 대동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이어 23일 오후 2시부터 △문예단의 문화공연 △총·부총학생회장 및 중앙기구, 단과대 학생회장 인사 △출범선언으로 분마당이 이뤄진다.

한편, 분마당에 앞서 오는 22일

학생대표자 회의가 열린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31대 총학생회의 총노선 및 사업계획서 인준 △31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및 특별기구장 인준 △삼반기 학원자주화투쟁 1차 정리 및 이후 방향 수립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손으로 뽑힌 각 학교의 대표들을 겸할당국에서는 수배하고 있다"며 "해오름 마당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하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철야개방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오늘 19일부터 29일까지 4층 제3열람실을 철야 개방한다. 중간고사 기간동안 한정적으로 실시되며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도서관 중앙현관문은 폐쇄된다.

이와 관련해 열람과의 한 관계자는 "가방이나 책 등으로 자리를 맡아 놓아 다른 학생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동은 삼가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동원학술상에 도전하세요"

원총, 우수논문 시상제 마련... 연구의욕 고취 기대

대학원총학생회(회장=이석중·임학박사과정 3학기)는 지난 1일까지 교학부와 3차례 협의를 통해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제도(가칭 동원학술상)'안을 마련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학문공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동원학술상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4개 분야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논문 각 1편씩 총 8편을 시상하며 이를 연구성과로 인정, 동원

논점으로 발간한다. 상금은 한편당 1백만원을 장학금 형식의 교비로 지급하며, 수상논문 해당작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학술상 응모는 수료자를 제외한 본교 일반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석사 재학생인 경우 석사학위논문은 제외되며 공인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고, 박사재학생은 반드시 공인된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고수동정

▲성용길(화학·한국 고분자학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국 고분자학회 춘계 정기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안종석(컴퓨터공학)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에 'TCP-like Flow Control For Teleconferencing'란 주제 발표 위해 Packet Video 99에 참석.

춘계수계대법회 신청접수

귀의 삼보하옵고, 본 정각원에서는 전 동국인 춘계수계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국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법회일시 : 99년 5월 11일(화) 오후 4시

2. 전제사 : 오복원 대중사

3. 수계장소 : 중강당

4. 수계접수

- 1) 접수기간 : 99년 4월 12일(월) ~ 5월 3일(월)
- 2) 접수방법 : 전화, FAX 또는 소정양식으로 접수
- 3) 접수장소 : 정각원 사무실(교수회관 지하)
- 4) 연락처 : TEL. 2260-3015/6 FAX. 2268-2314

서울캠정각원

제2차 외국어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TOEIC	LISTENING
	BASIC	I	II	III		
오전 07:50-08:50	Michael McDowell (강의실A)	Robert Buregel (강의실B)	Ross O'Connor (L309)	Paul Sather (L310)	Joseph Schouweiler (LAB C)	James Crossman (LAB D)
오후 17:00-18:00	Roy Choi (강의실A)	Bridget McGrath (강의실B)	Paul Treadway (L309)		Bruce Dawson (LAB A)	James Brache (LAB B)
후 18:00-20:00	영어회화는 조·중급 : Paul Sather(강의실 A). 이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2일)만 실시되며 직원들만 접수가 가능함.					
수강료	50,000원					
기간	99. 4. 26 ~ 99. 6. 7(6주 : 매주 월~금)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99. 4. 19일부터(각 신청순 마감)					

서울캠 외국어교육원

전문자격증 관련 특강

- 1. 일시 : 99년 4월 23일(금) 오후 3:30 ~ 5:00
- 2. 장소 : 원흥 1관 E102(공대건물 1층)
- 3. 강사 : "이원대 특허 법률사무소" 이원대 소장
- 4. 주제 : 21세기를 위한 엔지니어 커리어 관리(전문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서울캠공과대학

박석무이사장 초청강연회

- 1. 행사명 :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석무이사장 초청강연회
- 2. 제목 :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
- 3. 일시 : 99년 4월 20일(화) 오후 2:00 ~ 4:00
- 4. 장소 :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서울캠 사회과학연구원

조정래교수 초청강연회

- 1. 행사명 : 만해석화교수 조정래 선생 초청강연회
- 2. 제목 : 문학과 21세기 문명
- 3. 일시 : 99년 4월 21일(수) 오후 3:00 ~ 5:00
- 4. 장소 : 명진관 A202

서울캠 문과대학

인문대 학생회, 첫 학생총회 개최

강의평가제, 학년학생대표자협의회 건설 등을 의제로

인문대 학생회(회장=박재섭·영문4)는 지난 15일 북야원에서 해오름식 및 '강의평가제 실시' '학년학생대표자협의회 건설' 등의 안건으로 학생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총회는 지난 13일 인문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의 내용은 △교육환경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1과 1요구안과 1과 1발전요구안 발표 △강의평가제 실시 △학년학생대표자회의의 건설 등이다.

또, 지난 9일 학생과에 제출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에 관한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받아 13일에

있었던 '인문대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공개질의서와 답변은(질의서-답변) △현존 과제에서 미술학부 명칭 변경과 미술학과 교육환경 취약성 해결 계획·미술학부 명칭변경 없었고, 실습실 증축 현재 설계중 △사회복지학과, 불교아동학과 학과통합합으로 학제개편 할 의도·계획없는 △한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과의 대립국면을 바라보는 학교당국의 대처방안 및 국어국문 학부 명칭변경 이유·명칭변경 합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한문학과내 자체적인 대화 합의로 학장에게 건의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제 사설서부와 인문대에

서 실시하게될 강의평가제에 대한 입장-강의평가제는 교원직업자로 일부부분으로 설문지를 통해 연구, 분석,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객관적 강의평가를 위해 학술연구부에서 연구 검토중 등이다.

인문대 학생회는 이와같은 답변이 성의 없고, 객관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린후 각학과 복지요구안을 받아 2차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의평가제'를 특별안건으로 제시해 의결하여 통과 시켰고, 학년학생대표자회의는 시간관계상 단체 운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5일 가진 총회 때 총 6백 18명의 인문대 학생들이 대

상으로 전체 의결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 되었다. 이에 인문대는 강의평가제 실시 계획과 시행날짜를 학생들에게 알린 후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 각 학과 복지요구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가진 학생총회는 교육환경 개선, 교과과정개편, 교원 및 교육 시설 확충 실현을 결의하는 자리로서 학생 참여는 어느정도 진전을 보여주었지만, 당시 의결 장소와 학생들의 안전 인식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무리가 아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한의학 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움

'한의학 최근 동향...' 주제로

한의학 연구소(소장=최달영·한의학)는 '제3회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오는(19일) 오전 10시 한의학관(M301)에서 개최한다.

'한의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한방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1부에서 해외 초청교수인 하세가와 다케오·구원화 교수(일본)가 발표를 하며, 내용은 △발바닥 혈자극에 의한 특정 장기의 혈류증가 및 더 모그래퍼의 온도 화상에 의한 체표면온도 확인 △방사선의 태아영향으로부터 프로포리스의 방사선 방어 효과의 검토 등이다.

또한 국내 초청인으로는 △이경섭·김용섭(경희대 강남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 뇌신경마비센터)교수 = 플라공증의 DITI △심성호·

김호경(본교 부속한방병원 내과학교실, 분당병원 침구과학교실)교수 = 구안와사에 대한 DITI상의 임상적 연구 등의 학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전진자장애에 의한 조직혈류의 상승 △비타민 E 아날로그체(TMG)의 방사선방어 작용의 효과 및 방사선에 의한 태아기형 및 배사망으로부터 TMG의 방사선 방어 효과의 검토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경락기능·검사결과에 관한 분석 △청공탕 치료 청춘기능실조성 자극 출혈적 기리연구 △신수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생쥐의 면역활성 물질인 IL-6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학술발표가 이어진다.

한전매대

등산대회=상품(?)

○...동국의 힐러리경은 누구인가?

지난 16일 서울캠과 경주캠의 전 동국인들 산에 올라 산배들의 4·19정신을 기렸는데.

특히 서울캠의 경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행사에 참가한 모든 동국인을 설레게(?)했는데, 이날 행사의 절정 역시 금강산 관광 티켓 추첨에 모아졌다.

이에 긴장한 등산이 아쉽다는 한 시민, 동국인에게 산을 오르는 이유를 물으니 "상품이 있기에 산에 오른다!!!"

양심선언

○...번지 없는 양심.

때는 며칠전 경주캠 도서관 자료실.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다고 할 수 있는 자료실에서 어느 누군가가 주의를 두리번거리다 슬그머니 책을 찢다가 회전문대자와 눈이 마주쳐 어쩔 줄을 몰라하고.

하물지못 찢은 종이를 다시 끼워 넣고... 잠시후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또 다시 그 현장을 찾아 책장을 뒤적이는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나는 네가 몇 번전에 한 일을 아직도 알고 있다."

세습정치

○... "혹시나 했더니!"

지난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경찰의 원천봉쇄때문에 학생들이 거리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자유로운 대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더욱이 과거 김영삼 정권과 다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해서도 불만은 가득하기만 하니. 이에 대의원대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한 학생 한마디 "김대중 정권,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나?"

속빈 강경(?)

○...요즘은 윤방글 컴퓨터 실습실에 검은 손들의 출현으로 속빈 강경 격이된 마우스들이 눈에 띄게 속출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교묘하게 마우스볼만 빼가는 도둑때문에 컴퓨터 교육원은 학기마다 새제품 구입을 위해 60만원 상당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에 격분한 마우스를 연합회 왈 "우리에게 생계유지권을 보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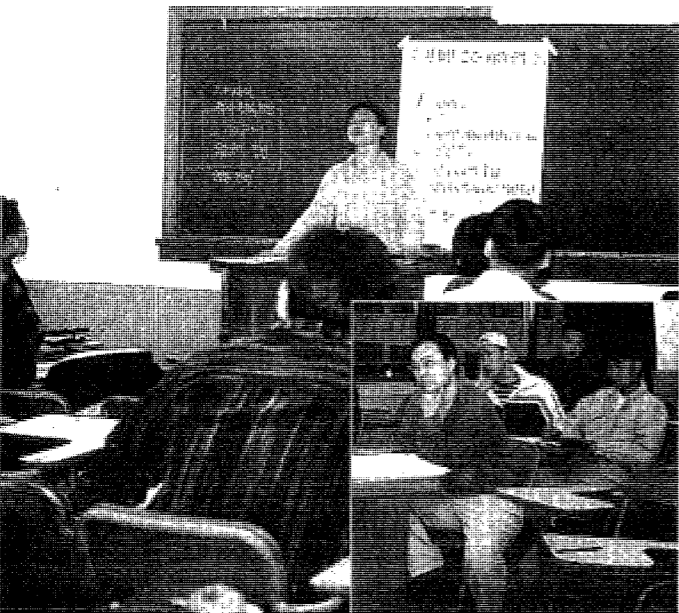
사복과, 의료원에 도서 2백여권 기증

'1인 1책 모으기 운동'으로 도서 마련

사회복지학과 학생회(회장=최현배)는 지난 15일 동국의료원 간호과에 2백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도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1인 1책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것으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이다. 기증된 도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해 환자들에게 배부된다.

한편 병원장실에서 가진 기증식에는 정철현 부속경주병원장, 박성순 간호과장, 박경일 사회복지학과 전공주임 교수,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서기증과 관련해 박간호과장은 "무료한 생활을 해야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생각해 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위(?)' 지난 15일 A305에서는 20여명의 4학년 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앨범 의혹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아래사진은 이시형졸준위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장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상경대, '상경체전 대동제' 성료

상경대 학생회(회장=김동규·경영4)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경체전 대동제'를 개최했다.

13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과별 노래자랑 및 각종 문화공연마당이 있었으며, 15일 예선결과 종무별 우승과를 살펴보면 △농구= 경제학과 △축구·발야구·야구= 관광경영

수계대회 개최

정각원(원장=정성분·불교학)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 문무관에서 '수계 대회'를 개최한다.

교수, 교직원, 학생,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수계식은 오복원 큰스님의 설법으로 치러지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각원 사무실에서 받는다.

수계 대회의 관련해 정각원 관계자는 "수계 신청시 수계비 2천원을 지불해야 하며, 교학과에서 교부하는 신청서 1부를 준비하고 수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생실습 실시

교무과(과장=조원생)는 4학년 교직이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교생실습을 실시한다.

교생실습 대상자는 비사범계를 포함해 총1백99명이며, 실습지역은 경주의 경우 1백11명, 인근 대구, 부산 지역을 비롯한 타지역은 88명이다.

학과 △출다리기·계주= 경상학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체전과 관련해 김동규회장은 "예전과 달리 경상학부 학생들이 선전을 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처럼만에 모든 상경인이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림회 법사단 출범식

석림회(회장=계현성님·선학)는 지난 15일 원효관 소강당 II에서 석림회 산하 법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김갑주 부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석림회 법사단장 인사말 △법사단 활동 및 법사단 소개 △환관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정책연구소

오는 29일 '월례회' 개최

지역정책연구소(소장=황윤식·회계학)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지역개발대학원 학생회의실에서 교수 및 학내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개최한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주제로 하는 이번 월례회는 황윤식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성홍모박사 △벤처기업의 KOSDAQ 등록과 Stock Option 제도=양승필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졸업앨범업자 선정 논란

졸준위, 업자선정권 재고 여론 높아

총대 특별감사 결과 주목돼

지난 9일 졸업앨범 업자로 명

성사진권이 결정된 이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시형·법4 이하 졸준위)의 집행부가 업자선정권을 갖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일 '졸업준비위원회는 돈준비위원회인가'라는 제목의 출처불명 문서가 각 행정기구의 학생기구에 보내져 졸준위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모 학과대표들은 천연사진관 김인식사장을 찾아갔으며, 졸업앨범 입찰에 참가했던 천연사진관 김사장은 "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졸준위위원장이 앨범입찰금액을 6만 1천원으로 내리고 말았기 때문에 입찰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말해 앨범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위 발언에 대해 졸준위위원장은 "어느 정도면 입찰되었느냐는 천연사진관 김사장의 질문에 입찰금액 한정금이 5만 8천원에서 6만 2천원이니 그 중간가격인 6만원에서 6만 1천원이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대답을 했을 뿐"이라며 "앨범제작업자가 타사사진관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정해준다고 따라하겠는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원효관 A305에서는 천연사진관 김사장을 찾아가 발언을 녹음해온 4학년 과대표들을 주제로 '4학년 과대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됐다.

그 회의에서 경과보고(앨범선정 의혹제기)를 한후 녹음한 테입을 19명의 4학년 과대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했다.

녹음한 테입에서 모과대의 "정말 깨끗하게 열리면 앨범제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사장은 "5만원대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졸준위 위원장은 "5만원대에 가능하면 왜 작년앨범을 6만 4천원에 제작했는가"라며 맞대응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가한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은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졸업앨범에 관한 모든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총대의원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졸준위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졸업앨범사태를 두고 총대의원회의 감사내용과 곧 이뤄질 임시총회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양우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모의토익 · JTP 시험 실시

외국어실력 향상을 위한 재학생 모의토익 및 JTP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99. 4. 22 (목) 17:00 - 19:00
- 장 소 : 모의토익시험(원효관 A309 종합강의실)
JTP시험 (원효관 A309 종합강의실)
- 대 상 : 재학생, 졸업생
- 문제유형 : 정규시험과 동일한 최신 유형
- 응 시 료 : 2,000원
- 원서배부 및 접수기간 : 99. 4. 21(수)까지
- 원서배부 및 접수처 : 취업과, 총학생회 취업대책국

경주캠 학생처

외 국 어 특 강

본 외국어교육원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영어학습능력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프로그램

교육 과 목	요 일	강 의 료	
종합영어(Skill)	월~금	30,000	
개 별 수 강 가 능	말하기(Speaking Skill)	월·화 (정원 18명)	20,000
	듣기(Listening Skill)	수·목	20,000
	영작문(Writing Skill)	금	10,000
영어회화	월~금 (정원 18명)	40,000	
- 강의기간 : 99년 5월 10일 ~ 6월 4일(4주)
- 강의시간 : 오전 8:00 ~ 8:50(50분 수업)
오후 5:10 ~ 6:00(50분 수업)
- 강 사 :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수 및 내국인 권위자
- 강의대상 : 학생(일반인도 가능)
- 접수기간 : 99년 4월 21일(수) ~ 5월 4일(화)
- 접수 및 문의처 : 원효관 3층 시청각 도서실 ☎770-2468

경주캠 외국어교육원

도서관 철야 개방

본 도서관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중 다음과 같이 일반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니,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 기 간 : 99. 4. 26(월) - 5. 7(금)
- 개방열람실 : 제 2열람실(5층)
- 유의 사항

가. 오후 12:00 - 익일 06:00, 관내 복원복로 및 도서관 출입구 폐쇄

나. 오전 06:00 - 08:00, 해당 열람실 2시간 폐쇄(청소시간)

※ 이용자는 열람수칙을 준수(침구류 반입 금지, 음주주 임관금지 등)하여 시험기간중 열람실 24시간 개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경주캠 도서관

동약로



단결과 화합

“난 오늘 처음이야, 힘들지 않을까?” “글세, 나도 산을 타 본지 꽤 됐는데...”

경주 남산 입구, 아침부터 두 남학생은 등번호표 배부를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4.19기념 등산대회’에 참가한 이들을 뒤로 길게 늘어선 4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나, 4.19 등산대회 왜 하는지 알아?”

“난 그냥 학교에서 등산을 간다길래, 접수하고 왔어”라며 조금전 두 친구는 모자와 번호표를 배부받고, 정상을 향한 험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기저기 튀어나온 바위와 깊숙이 패인 구덩이를 경충경충 뛰어넘는 학생들, 험한 길에서는 받치고 끌어주는 동지애를 발휘하기도 한다.

몇몇 학생들은 뜨거운 불볕에 모자를 꼭 눌러쓰고, 최대한 태양과의 접촉을 피하기위해 온몸을 가리기도 한다. 전망대에 이르자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낸다.

여기저기서 무리지어 사진촬영을 하는 학우들과 교직원들의 모습에서 조금전 흘러던 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산은 새삼 붉어 왔음에 끄떡이게 해준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삼릉에 다달아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까자랑. 그간 감춰둔 끼를 유감없이 내보이는 학생들. “야! 좀더 흔들려봐, 그것 밖에 못하냐” “야! 자에 넘멋있다” 여기저기서 웃음과 환호성이 끊이지 않는다.

어쨌든 등산대회는 막이 내려진다. 하지만 하루해를 꼬박 투자한 등산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매년 학교주최로 치러지는 등산대회, 과연 참가자들은 4.19 등산대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을 오를 것일까?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참가자들의 무관심과 무의식적인 행위로 인해 그 의미마저 무색해져 버리고,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한 등산대회로 변질되어 간다면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미영 기자 dg4723748@mail.dongguk.ac.kr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대토론회

한총련, 대학사회의 공동체

국보법 철폐시급 ... “인권탄압 중지하라”

지난 14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자 종로성당 강당에는 홍근수 전국연합 공동의장,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이덕우 변호사, 최상천 연세대 문과대 부학생회장 등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대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하지만 균형된 시각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정부측 인사의 모습은 끝끝내 보이지 않아 아쉬움속에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덕우 변호사 : 현재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논리에 의해 존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모든 범죄유형이 형법과 다른 특별법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상의 내란, 간첩, 범죄단체구성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제7조 고무, 찬양, 동조 죄의 경우 다른 법률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위의 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국가보안법의 95%이상이 이 조항의 위반임을 상기할 때 인권침해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에따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합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총련 대의원 연행·구속과정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행위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 98년 8월은 수해복구작업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순천향대 학생들 또한 충남 당진

군에서 활동을 했다. 작업을 마친 후 학생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사복형사들이 노상에서 공포탄과 가스총을 발사하며 광산속 순천향대 공과대 학생회장과 한현철 자연대 학생회장을 연행하였다. 이를 저지하는 가운데 한 여학생은 차에 매달린채 끌려다녀 할과상 및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16일 명동 전철역 부근에서 덕성여대 자연대 학생회장 전해영씨는 사복형사들에게 옷을 찢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연행되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은 연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언

홍근수 전국연합 공동의장 :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단정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젊은 대학생들, 지성인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총련은 대학생들로부터 민주적 적법 절차를 통해 선출된 각 대학의 총학생회 회장들로 구성된 대학사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대학을 이적단체로 만드는 것과 같다. 종전의 정권이 한총련에게 낙인 찍은 이적단체라는 누명을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한총련대표로 나온 최상천 연세대 문과대 부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벗겨주지 않는다면 민족의 자주, 해방, 통일 길은 멀고도 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상천 연세대 문과대 부학생회장 :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이민(利民)단체이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 70%이상, 법률전문가 99%이상이 문제를 지적한 악법이다.

무엇보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정치, 사상, 학문의 자유 등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인권탄압 시비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공안대책협의회와 같은 공안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한총련이 이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유고사태는 말한다

내부갈등은 자민족이 해결해야

러시아 청년들이 “세르비아 형제를 돕자”며 의용군을 조직, 유고로 떠나고 있다. 4월10일까지 확인된 세르비아 지원 러시아 의용군 지원자 수는 모두 1만 2천여 명이며 이들 가운데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공 방어와 레이더 관련 유경험자인 시수자 5백여명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타타르인등 러시아내 이슬람계 민족 청년들도 코소보 알바니아계 지원 의용군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러시아 국민들이 이웃나라에 가서 두팔로 갈라져 총질을 하는 여허구니 없는 일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서방 여론은 구 연방의 내전이 오로지 호전적 민족주의,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인종적·종교적 분쟁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발칸 반도의 권력 싸움에 초점을 맞춘 국제언론은 정치인들간의 갈등만

치·경제적 파산, 즉 성장지하, 외채증가, 외채상환 부담의 가중, 이러한 경제위기는 정치적 안정을 위협했고 인종갈등 또한 증폭시켰다. 국제 채권단과의 외채상환 만기연장 협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개혁은 연방국가체제를 약화시켰으며 중앙정부와 공화국 정부 및 자치구 사이의 정치적 분열을 급속도로 가속화했다.

경제제도의 붕괴, 생산시설의 탈취, 시장경제의 무차별적인 도입 그리고 영토분할이아말로 발칸반도 비극의 참된 원인이었다. 거시경제 개혁정책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했고, 일할 권리와 식량 그리고 보금자리와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을 송두리채 빼앗아갔다. 국경이 다시 그려지고, 법제도가 바뀌었으며, 공기업은 도산으로 내몰렸다

역사적으로 슬라브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결과 연대 그리고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조작되고 파괴되고 말았다.

“유고문제는

종족·민족문제에

미국과 나토가

전략적 이유로

개입한 결과”

미국과 나토는 알바니아쪽에 대한 세르비아족의 ‘인종청소’를 막기 위해 공군력을 투입했으나 그 결과 오히려 인종말살과 난민탈출은 더욱 격심해졌다. 이러한 비극은 제3자 당사자들간의 종족·민족주의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개입결말에 적 노력이 생생히 보도되었고 유엔의 평화유지노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세계 TV에 방영되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유고 내전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은 교묘히 은폐되었다. 독일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거론되지 않았고 내전이전에 있었던 심각한 경제위기는 잊혀진지 이미 오래였다. 세계 언론의 눈에는 인구 2천4백만을 가진 유고가 경협한 빈곤과 파괴과정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유고연방의 붕괴는 국제 채권단이 유고연방 정부에 강요한 거시경제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980년부터 몇 단계에 걸쳐 시행된 경제개혁 정책은 유고의 국가경제를 붕괴시켰고 공업부문의 와해와 복지국가의 분열을 낳았다.

인종적·사회적 반목에서 비롯된 분리주의 경향은 무엇보다도 유고국민이 극심한 빈곤화 과정을 겪게되면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티토가 사망하기 직전인 1980년에 시작된 제1단계 거시경제 개혁은 정

우리역사에서도 민족내부의 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았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는 당나라와 정치·군사적으로 결탁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케하고 광활하고도 드넓은 고구려 민주평판을 당나라에 바치고 말았다. 그리고 조선말 동학농민군의 자발적 개혁과 혁명에 대해 씩씩대로 씩씩했던 조선왕조는 청나라와 일본군을 끌어들여 군사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그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작업은 본격화 되었으며 해방과 동시에 연이어 벌어진 전쟁이후 우리민족은 내부문제가 아닌 외세의 전략적 이해로 인해 지금까지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정연욱
전국연합 정책부장

의장 후보 등록 ‘불협화음’

7기 한총련 의장후보 등록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분래 이번 의장선거에 윤기진 명지대 총학생회장과 송영우 경북대 총학생회장 등 2명이 출마의사를 밝혀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송군이 등록마감시한인 9일 6시까지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40여 분이 지난 뒤에야 3백명의 추천서등의 서류를 구비해 선관위가 송군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총련 중신위측은 “한총련 중앙상임위에서 등록시간을 결정하고 선거운동본부에 전달되었다면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지, 상황에 따라 빠고 더하고는 가감식 판단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송영우 선운본측은 “송영우를 즉시

후보로 등록·접수해 정상적인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두 의장 후보자의 대중적인 토론회를 성사해 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따라 송영우 군은 지난 15일부터 한총련 단결을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

동강 보존 위한 토론회

동강댐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조발제(10분)와 동강댐이 건설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생태, 경제성, 지진 등 총 12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발제(각 15분)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발제 이후에도 40여분간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가 진행된다.

‘홍기획’ 직원 연행

한총련 연루 혐의 ... 15일 풀려나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홍기획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경찰이 들어와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연행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기획은 한총련 관련 문건등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였으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또한 한총련과 연루된 혐의가 적용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직원들은 지난 13일, 홍기획 직원들도 범인으로 부터 영장이 기각돼 15일 새벽 풀려났다.

신용불량자 사면 논란

선별적 사면 통해 경제회복 도모해야

'97년말 148만 9천명(개인 1백43만4천명, 법인 5만5천개)이던 신용불량자 수가 '98년 8월말에는 38.7% 늘어난 2백만명에 달했으며 현재는 이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된 데에는 우선 자신의 신용관리를 잘못된 개별 당사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겠지만 금융기관 또한 상환능력이나 신용도등 정확한 신용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결국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자 급증과 함께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개인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제위기 직후 연 30% 정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거래은행 퇴출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확보를 위한 은행의 신규대출기피등 극심한 금융경색, 거래기업의 연쇄부도 등에 따른 신용경색,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 환차손 및 원자재 가격상승등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아무리 자기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원리금의 연체가 불가피한 업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출연장이나 신용보증 제한등 각종 금융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도위기를 배가시켜 '98년 한해 동안에만 사상유례없는 2만2천7백89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IMF체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중소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지원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용불량원인을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록을 삭제해 줌으로써 선의의 부도기업인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합리적 형평성에 부합된다.

더욱이 '98년들어서만 90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등 실업문제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도를 내고도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도기업을 회생시켜 정상화시키는 것은 고용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99년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IMF 이후 중소기업의 부도원인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백75개 조사대상 부도업체중 업력 10년이상인 2백27개로 60.5%이며, 특히 20년이상된 업체도 84개로 22.4%에 달하였으며, 부도이후에도 가장 중된 기업이 39.4%에 이르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

업활동에 장애로 작용하는 불량신용거래 기록 말소등 경영정상화 지원은 그 어떤 창업기업 지원보다 실업난 해소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신용불량자 사면조치는 '신용사회를 혼드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용관리에만 지나치게 얽매어 나머지 비정상적인 경제상황하에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인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경제위기의 현실을 다소 간과한 것이다.

모든 신용불량자의 과거 기록을 말소하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6개월에서 1년 즉, IMF라는 경제적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중소기업이면서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등 신용불량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 한해 불량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기나 부도덕한 이유로 고의부도를 낸 사람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며,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의 부도기업인까지 무분별하게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여 회생을 어렵게 하는



박혜철 기업중앙회 세계금융부장

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경영의 노하우, 영업망등 유·무형의 귀중한 경제적 자원을 사장시키고, 경영자 및 종업원에

게는 실직과 새로운 고용기회 상실이라는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가동 중인 기업이 매출액만 줄어들어도 신규여신을 기피하는 현행 우리 금융종교를 감안할 때 모든 금융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각고의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기업회생에 장애로 작용하는 금융제재는 극소화시켜 주는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외환위기에중에서 신용관리를 잘해 온 사람들과의 역차별이기 이전에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다수 부도 중소기업인의 회생의욕을 북돋우고 은행 부실채권도 줄임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동시에 은행도 살리는 윈-윈 기능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신용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설

등록금 협의의 성과와 교훈

지난 2월부터 동약을 뜨겁게 달구었던 등록금협약이 지난 12일 송석구 총장과 김호중 서울캠 김호중 총학생회장의 면담을 통해 마무리 됐다.

이번 협의는 두차례의 총장실 접거 시도등 갈등을 겪었지만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긍정적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높이 살만하다. 특히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증·개축과 대학운영위(가칭) 건설 준비위 구성 등은 전 동국인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쉬운 점은 학교측과 학생들 사이에 상설적인 대화창구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이러한 진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변변한 대화창구가 없었기에 이제껏 학생측과 학교당국은 상황이나 입장에 대한 공유없이 나름대로의 주장만을 거듭해왔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실무를 담당하는 학교당국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결정·시행돼 왔으며, 학생들은 사후에 입장을 정리하고 반발해 왔던게 고작이다. 그렇기에 그간 동국은 대학기 침심하게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전동국인이 하나되어 동국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등록금 협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은 바로 학내 여러 구성원들과 학교당국간의 대화를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입장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해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최소한 서로간의 입장을 밝히고,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립 재고해야

지난 97년 우리는 주위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경주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사업을 추진한 경주시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시청의 입장을 더 중하게 여긴 독단적인 행정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와 비슷한 웃지못할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 경주보문로 일대 천군동 매립지 근처에 소각장 설립 문제로 경주시와 주민·재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수거문제나 환경문제는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경주시의 하루 폐기물량이 2백 39톤에 이른다는 것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알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매립방식이 아닌 소각방식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생활환경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러나, 대구, 부산 등지의 소각장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9배에서 최고 45배까지 이른다는 점을 볼 때 이는 결코 방관만 하고있을 일이 아니며, 지역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또, 경주시측이 소각장 운영시 다이옥신의 농도를 기준치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까지 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 우려했던 점이 여전히 부각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경주시 주장으로 적어도 10년, 재야단체에서는 20년은 족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매립지를 두고 왜 벌써부터 소각장을 설립하려 하는것인가이다.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없는 경주시는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해도 환경이나 주민들을 담보로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독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경주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다.

75분 수업 시행

수업 효율성 재고는 학생들 입장에서

일방적 학사행정은 피해야

수업의 효율성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75분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예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5분 수업제란 기존 50분 수업제를 75분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존 3학점짜리 강좌가 50분씩 3시간이었던 것을 75분씩 2회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 50분 3회 수업이 2시간, 1시간으로 나뉘어 수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교양과목의 경우에는 아예 시간표를 무시하고 3시간 연강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1시간을 얹고 2시간만 수업을 하는 경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의 연강에 따른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2시간 수업에서 통상적으로 쉬는 시간 10분을 주는 것 등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에 비춰볼때 75분 수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5분 수업제를 시행하게 되면, 3학점짜

리 수업을 반으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 일관성 문제같은 시간활용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업의 집중도 향상과 적정 시간강의에 따른 강의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다.

현재 75분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로는 서강대, 이화여대 등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수업적응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 1학기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서강대의 경우 현재 화·목요일에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시행초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 학생들마다 75분 수업에 대한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뚜렷이 나뉘었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75분 강의제에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도 오는 2학기부터 3학점 강좌에 75분 강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타대학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대는 일부 강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학기부터 75분



강의제와 50분 강의제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본교도 지난 12일 교무위원회의에서 교무처(처장=서윤걸·불교학)가 "75분 수업제를 다음학기부터 시행하기에는 전산망 등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2학년부부터 시행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75분 강의제 도입을 시사했다. 현재 교무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타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며, 정보관리처 등 유관 부처와도 연계하여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75분 수업시행에 앞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난 9월 서강대학교 신문사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3%의 서강대 학생들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답한 사실과 또한 "학교의 학사행정이 일방적이다"에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사행정 시행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교가 75분 수업제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의 검증을 통해 시행하도록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화여대나 서강대의 경우처럼 수업시행에 있어서도 학교는 적용과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강 부주장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미경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66)1770-2058 팩스 (066)1770-2057

SINCE 1963 제37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나는야, 꿈꾸는 젊은 작가



유명 작가들이 거쳐가는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1963년부터 수많은 예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가 올해로 3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혼불'의 작가 최명희(1964년, 소설부문 장원) - '새때'의 작가 문정희(1965년, 시부문 장원)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와 '모닥불'의 작가 안도현(1979년 우수1석) - 모두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의 자랑스런 선배작가들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품종목

시·시조 2~3편 이내 수 설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 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예선

제출기간 1999년 5월 1일~5월 13일 제출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우편번호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본선

일시 1999년 5월 29일(토) 오전 10:00 장소 본대학 교정

본선입상자 특전

- 각 부문별 장원 입상자가 본교 인문계열에 입학할 경우,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각 부문별 우수작 입상자가 본교 인문계열에 입학할 경우,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반액 면제
■ 3위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학 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전화 (02)2260-3491~2]나 각 고등학교 문예반 지도 선생님께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중심지에 소각장이라니”

경주보문에 ... 관광이미지 실추·환경문제 '논란'

“이토록 아름다운 경주보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지난 11일 경주 보문 일대에서 YMCA, 경실련, 천군감리교회 등 지역재야단체들 주축로 열린 '쓰레기 소각장 설립 반대서명운동'에서 한 주민이 던진 말이다. 지난 해 경주시에서 보문일대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래로 소각장 건립문제는 경주시측과 주민·지역단체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었다. 소각장 건설을 하기에는 현재가 모든 조건에서 적합하다는 시의 입장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지역단체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1일 기준 2백35톤, 연간 8만7천7백75톤 가량이며, 모든 쓰레기는 매립되며, 이중 절반 이상은 천군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에 대해 경주시측은 “매립장 사용제한이 10여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소각장 설립 추진은 필요하며, 매립지 근처에 위치할 수 있기에 소각장 사용이 훨씬 편리할 것”이라며 소각장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경주 YMCA의 신영철 간사는 “우선적으로 경주시측에서는 쓰레기 감량정책을 펼치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의 매립지를 20여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소각장을 지금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본교 의대의 김익중 교수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청산기리보다 1천배 이상의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물질은 암을 유발시키는 등 신장, 간장에 유해할 뿐 아니라 물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주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보문에 설립됨으로써 관광 이미지 실추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소각로 설립문제는 정책문제나 쓰레기 수거의 질적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본교 역시도 이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주시는 이에 대해 재고 할 필요가 있으며, 본교생 역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황성규 기자
dg19711439@mail.dongguk.ac.kr

내가 아는 달과 천강

달하나 천강에

내가 아는 나라에는 달이 하나 떠있고 모든 강물에 달이 들어있다. 옛날부터 소나무가 많던 곳이어서 달 옆에는 항상 건강한 소나무가 심심치않은 여백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소나무를 항상 좋아했다. 소나무 그늘에서 하루 즐린 땀을 식혔고, 그 그늘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그 나라는 강물과 같이 공기도 맑아서 상큼한 송진 냄새, 풀 냄새, 꽃 냄새, 흙 냄새가 넘친다. 크게 들이쉬면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항상 만족하는 아이같은 표정으로 살아간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 사람들은 소나무와 강과 강물 속의 달을 보며 살아가다.

한때 강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러워진 적도 있었다. 강물을 따라서 공기

도 더러워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적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달은 그대로 있었지만 천강의 달은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소나무도 많이 줄어들었다. 달과 천강은 이제 인쇄물이나 모니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천강의 달을 바라보는 호젓함도 몸이 좋아하던 냄새들도 잊혀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 달과 천강을 다시 살려내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단순히 옛날로 되돌려 놓지는 않았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며,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느리게 일을 함으로써 더러움을 줄이자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모두들 재산을 각축하여 더러움을 줄이는데 사용하였고, 강물과 그 속에 사는 미물(微生物)들도 여기에 호응하여 남은 더러움을 없애주었다. 조금씩 덜 쓰고, 조금씩 불편하였지만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더 좋아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아까운 마음에 한푼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들도 다시 깨끗해진 강물과 강물 속의 달과 여백의 소나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현자들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강물과 그 속의 미물들을 달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방법을 알 필요가 없어졌다. 천강의 달과 여백의 소나무, 몸이 꼭 필요한 냄새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옛날, 강물에서 달을 볼 수 없었던 옛날의 기억을 영원히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의과대 미생물학 교실

4.19 민주혁명을 기리며

혁명이끈 본교, '4·19등반대회'로 참뜻 되새겨

고려대는 4·18 구국대장정 ... 유신시절, 학생시위로 '왜곡' 탄압하기도



4·19 기념등산대회 첫시작을 알린 동대신문(1970년 4월23일자)

*19일날 상오 시내 수개교 대학, 고등, 중학생들은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민

주주의를 절규하는 데모를 일으켰다. 데모대는 삼시간에 도심지로 몰려들어 의사당 앞을 지나 경주대로, 법원으로, 서대문 민원장점으로 도달하였다

1960년 4월 30일자 동대시보는 전국민이 민주를 위해 봄부림친 4.19 민주혁명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때 가장 선봉에 선 동대생, 노희두(당시 법3) 열사는 정부의 총칼에 피눈을 흘리며 바쳐야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4.19 민주혁명 시위를 이끈 본교와 고려대는 아직까지 그때 그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바로 본교의 '4.19 기념 등산대회'와 고려대의 '4.18구국 대장정'이 그것이다.

1970년 시작된 본교의 4.19기념 등산

대회는 올해로 30돌을 맞았다. 전 동국인이 봄을 맞은 북한산을 오르며 4.19의 참뜻을 되새기는 것이다. '4.19국립묘지'에서 북한산성 매표소까지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등반하면서 북한산의 정취를 만끽함과 동시에 4.19 열사들의 호연지기를 등산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과거, 유신정권 시절 등산대회는 정권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현 정부에 도전하는 학생운동의 한 갈래로 파악, 행사가 무산될 뻔 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4.19 학생의거'에서 '4.19 민주혁명'으로 명칭이 바뀌었듯 80년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공산당이 배후조종을 했다'는 등으로 왜곡하던 시대는 끝났다.

한편 고려대 운동장에서 4.19기념탑까지 전 고대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가 '4.18 구국 대장정'.

지난 97년 4.18 구국 대장정 때에는 경찰들과의 마찰로 행사가 4시간이나 지연되었고 행사는 자정이 다 되어야야 끝이 났다. 4.19 민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97년 당시 사회적 문제들을 '외쳤기' 때문이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민중이 함께 일어났던 4.19혁명, 미제

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을 무참히 교수대의 이슬로 보냈던 그 정권. 지금 현재 우리사회는 통일을 외치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부른다. 39년전의 그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본교의 '4·19 기념 등산대회' 모습.



4·19 희생 열사 추모 '동우탑'



고려대의 '4·18 구국대장정' 마라톤 대회

신작안내

경허, 길위의 큰 스님(책)



인간과 우주의 본질, 그 실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책
“이 평전은 길의 성현 경허의 위대한 깨침과 웅혼한 삶을 통해 존재의 본질과 그 실상에 대한 화두와 삶

과 역사에 대한 화두를 탐구하는 선방이며, 참사람의 길·참삶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이며, 새 천년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항해이다.” 불교학과 목장배 교수가 권한다.

한길사 출판사. 정가 1만원

difference(음반)



권진원 4집 앨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요 해와 달과 별이 내 꿈이예요. 멀리 있다 해도 상관 없어요 꿈이 있는 삶은 행복하니까요”

4집 앨범에 수록된 나의 꿈 중 한 부분. 그동안 일반 대중가요에서 들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진원만의 매력 있는 목소리와 감미로운 선율로 다가온다.

km뮤직 발매.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새 천년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문 선생님을 찾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인간은 인성과 지식이 균형있게 구비된 자질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참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각종 교육기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자들의 소명 의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에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한 역량을 교육자들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그 거룩한 소임을 수행해오신 노고와 공로에 대해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모교인 우리 동국대학교는 지난 3년간에 걸쳐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그리고 정보통신 우수시범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그 위상과 성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교육자동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자동문들께서 개인 또는 직장 단위로 신상을 알려주시면 그 결과를 수합하여 금명일에 교육자동문 모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빠짐없이 연락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동국대학교 학부 및 각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전원
2. 제출기간 : 99년 4월1일부터(1차접수 : 4월30일까지 1개월간)
3. 제출양식 : 개인별, 또는 재직 학교별 명단
4. 제출방법 : Fax, 전화, E-mail, 우편발송중 편리한 방법

학 교 명	직 위	성 명	졸업학과	자택전화	자택주소
			학위(대학원)	()	
			졸업년도	직장전화	직장주소
			19 년 월	()	

5. 제 출 처 : 동국대학교교과100주년기념사업본부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02)2260-3794, 2260-8992~3/Fax(02)2260-3796
E-mail : develop@cakra.dongguk.ac.kr
6. 기 타 : (1)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다른 학교 재직 동문교사 명단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모교발전을 위한 제언, 모교와 동문교사간의 상호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한 좋은 의견도 접수합니다.

동국대학교

자, 이제 시작이다!

손맛잡고 어깨넓고 만들어가자!

99년을 살아가는 민족동국 청년의 이름으로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일궈가는 대동한마당

민족동국 31대 자주적 총학생회가 일만 이전 학우들과 함께 99년 해오름을 선포합니다.

- 전야제
4월 22일 늦은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여는 마당 - 백성응원단
민중연대 한마당 - 노동자, 농민, 빈민 연대 발언
국가보안법 철폐 한마당 - 장기수 어르신들 초청
민족동국 한마당 - 93년의 민족동국의 자랑찬 역사와 99년 상반기 학원자주회투쟁
초청공연 - 노래극단 통일 노래 희망새
대동한마당
- 본마당
4월 23일 2시부터 만해광장에서
문화공연
총부총학생회장 및 중앙기구, 단과대 학생회장 인사
출범 선언

서울캠 민족동국 31대 자주적 총학생회

매체비평

- 연극편

'오늘'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는 작가의 극정신과 극형식, 그리고 그 의미이다.”



'오늘'은 작가가 건네주는 우리시대 욕망에 대한 항체이자 역군제이다.

연극 '오늘'에는 성폭행을 당한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출세한 외삼촌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외삼촌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동생도 외삼촌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여동생은 결혼 직후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고통을 끊었고, 여인은 삼촌과 그 자신에게 복수를 한다. 이것은 통속적인 대중극의 여러 형식인자

가운데 성과 폭력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관객의 내밀한 호기심을 촉발시키는 이야기이거나 이제는 신문사회면에서조차 소홀히 다루는, 그래서 신문독자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는 작가의 극정신과 극형식, 그리고 그 의미이다. 공연이 끝나도록 작가는 무대 위의 전사(前史)에 대해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말을 아낀다. 메인스페이스가 좁아져 한계상황에 도달해도 관객이 통념적으로 기대하는 의무적 장면(Obligatory scene)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면서 관객들을 무대 위의 인물에 투사시켜 전율을 한다. 그것의 일차적인 요인은 '오늘'이 일종의 고

문극, 심리극이라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역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언어에서 비롯된다. 특히 그들 자체가 겪는 고통의 깊이와 삼촌의 참회를 간절하게 바라는 여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대사는 관객들에게 종으로 손을 베었을 때의 섬뜩함을 제공한다. 동시에 극장에 들어서면서 성폭력이나 고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객들의 훼손된 호기심이 어찌면 이 연극의 먼 전사(前史)라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된다. 관객이 경험하는 그 작은 고통은 연극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 막이 내리면 그것은 이미 작은 고통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1998년도 대산문학상 희곡 부문 수상자인 이만희의 최근작인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밀한

정신풍경의 정체이며, 거리에 흘러넘치는 유혹과 거기에 빠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작가가 건네주는 항체이며 역군제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것이 강요된 주사의 형태일 때 관객들로부터 완강히 거부된다는 것과 항체의 효력은 스스로 간절히 바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작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삶의 풍경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 풍경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병영으로 생각한 이상이나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황지우의 시를 생각해 한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자문케 한다. '나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살만한가' 라고.

이종대
문과대 국문학부 교수

영원한 동국인 모두 모여라

'Home Coming Day', 동문 모교방문행사 ... 본교도 추진중

'Home Coming Day'=고향 찾아오는 날(?) 아마도 우리 동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이 날은 마치 산란을 위해 회귀하는 언어떼를 연상케 한다. 바로 졸업한 동문들이 모교를 찾아와 한바탕 축제의 장을 펼치는 날을 일컬어 'Home Coming Day'라 한다.

모교사랑확인·기부금 조성

동문의 자발적 참여 중요

'Home Coming Day'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행사는 미국의 대학들에서 시작됐다. 하버드, 예일 등 IVY리그 8개 명문사립이 실시하고 있는 'Home Coming Day'는 미국 대학의 중요한 행사들 중 하나이다.

이들 IVY리그 8개 명문대학의 공통점은 2백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사립대학이라는 점. 이들 대학들은 동문들의 기부금이 전체 수입 중 35.5%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내 사립대학의 기부금 수입이 5%이하임을 감안한다면 실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미국 사립대학의 기부금조성이 활성화된데에는 이 'Home Coming Day'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은 마치 연어 떼처럼 모교로 돌아와 그들이 아끼는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사랑하는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세계 대학랭킹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운대학의 경우 졸업생들을 관리하는 부서(Alumni Relations)가 따로 마련돼 있으며 졸업한지 25년 또는 30년된 동문들이 참석한다. 졸업생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가족까지 참여해 기숙사에 머물면서 4박5일 동안 음악회, 강연회 등 축제를 벌인다. 또한 이들 동문들은 예비 졸업생들을 상대로 친교시간을 갖고 취직알선 및 진로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대학의 'Home Coming Day'가 동문과 재학생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은 것과 달리 현재 국내 사립대학은 이 행사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동문 재상봉행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30여년전부터 동문들을 학교로 '모셔온' 연세대가 가장 좋은 예. 이화여대나 고려대 등 나머지 몇 개 사립대학들은 동문들만의 행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 태반이다. 현재 본교도 동문들을 모교로 '모셔오기' 위해 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본부에서 외국의 'Home Coming Day' 같은 취지의 행사를 추진중이다. 바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동국대학교 동문 선선님을 찾습니다!' 라는 이름의 행사. 본교 출신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폭시키기 위해 치러지는 이 행사는 향후 교사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현재(14일) 총 3백55건이 접수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외국대학이나 연세대가 동문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과 달리 본교는 행정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비롯 공무원·경영인 등 여러 직종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학교를 더욱더 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라는 개교 1백주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의 말은 'Home Coming Day'의 의미를 가감없이 전한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연세대 '동문재상봉' 행사

37년째 지속된 모교 사랑 축제

1963년에 시작해 올해로 37돌을 맞이하는 연세대의 '동문 재상봉행사', 졸업한지 25주년, 50주년을 맞이한 대산배들이 모교에 대한 그리움과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연세대 교정을 찾는다. 개교기념일인 5월 둘째주 토요일을 동문의 날로 지정,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학부뿐만 아니라 특수대학원 동문들도 졸업한지 5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이 되면 참석한다. 비단 연세대동문만이 아닌 졸업생들의 가족들도 참여하는 '동문 재상봉행사' 날에는 열린 음악회, 학교홍보영상 상영, 창립총회, 'Garden party'라 일컬어지는 총장과의 점심식사 등이 치러져 모처럼 모교를 찾은 동문들을 즐겁게 한다. 또한 기념메달, '재상봉' 모자, 명찰, 그리고 동문들의 주소들이 담긴 CD-ROM을 제작, 배포해 동문들의 애교심을 북돋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은사찾기 운동' '동문찾기 운동'을 벌여 그들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동문 재상봉행사'에 참석하는 졸업생들의 연배는 대체로 50대 초중반.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에 모교를 방문,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은 물론 모교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한다. 특히 학과별·단대별 동문대표로 구성된 행사준비위원회는 3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2개월동안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한다. 또한 30여년동안 계속된 행사이기 때문에 동문들은 누구나 연타이 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작년에는 어떤 선배가 왔는지', '올해는 내차레구나'라는 식으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문들의 참여는 연세대의 '동문 재상봉행사'가 30여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며 아울러 학교발전의 훌륭한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자문소식

학교 안에서

끼장터



서울캠 여학생 부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풍계구름의 단독 공연으로 신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민중가요에서 락,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가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2일 12시, 계산관 앞에서. 문의 2260-3056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

경주캠 국악과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우리의 국악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실장고함주, 불교무용, 해금독주, 여창가곡, 가야금독주, 범패 등 11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5시30분. 경주캠 원호관 소강당 I에서

학교 밖에서

팔에게 보내는 편지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극단 산울림이 '명무대시리즈'로 내놓은 두 번째 무대. 1회 박정자에 이어 윤석화가 출연한다. 극중 주인공 멜라니는 35세의 잼즈 발라드 가수. 강하고 열정적인 멜라니가 사춘기를 맞이한 팔에게 보낼 편지를 쓰면서 그녀 자신의 인생살이를 회고한다. 오는 7월 4일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문의 334-4915

보현행원송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제15회 정기연주회로 효를 위한 음악회. 효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될 이번 연주회는 70여명의 국악관현악과 3백여명의 대규모 혼성합창단 출연.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문의 2274-3570

메아리

프라이버시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 책은 누구나 한번쯤 읽어봤을 것이다. 입금님의 귀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입금님은 궁리 끝에 의관의 길이를 높이는 생각을 해냈다. 그래서 장인을 불러 의관을 제작토록하고 장인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나 장인은 대나무숲에서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죽었다. 대나무숲을 베어도 바람이 불때만 소리는 어김없이 들렸다. 그래서 입금님은 사실을

밝히고 얘기는 끝났다. 그러나 입금이 의관을 제작한 후 장인을 비밀보장 차원에서 죽였다면 이런 얘기는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초등학교시절 매일 일기를 써서 담임선생님의 도장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펜으로 밑줄그어 "이부분은 참 잘했어요"라는 글이라도 적혀있으면 가슴이 벅찼던 아련한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일기에 써서

담임선생님의 도장을 받은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더 성장해 중학교 시절 일기장에 자물쇠를 채워 책상서랍속에 넣어놓았는데 언젠가 그 일기장을 꺼내본 사실을 안 후 언iece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기억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고, 이성과 결합하여 자식을 갖고, 늙어 무덤에 들어간다. 그중 삶을 영위해감에 있어 받은 생사의 연결 고리상에 놓여 있다. 즉 우리가 생활

하고 있다는 말속에 색스도 일상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인들은 성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났을때나 공개장소에서 일상의 일로 거론하는 것을 꺼린다. ▲0양의 성생활 테이프 공개가 세간에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라며, 사람들은 0양을 영위해감에 있어 받은 생사의 연결 고리상에 놓여 있다. 즉 우리가 생활

신과 관련된 물품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테이프를 공개한 사람의 행동을 문제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0양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활을 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자신있게 이 여자에게 화살을 날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박양우 학술부장
dg19711437@mail.dongguk.ac.kr

소나기

전직대통령께 한마디

(YS와 쏘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만 △이제껏 벌여온 돈 가지고 잘먹고 잘사유.
 △부신이 낳은 최악의 인간.
 △주제 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군요!
 △YS, 아직도 할 말이 있었던가!
 △대통령 좋은 것이지. 좋으면 뭐해 육이나 먹고, 똑바로 하지.
 △생각도 하기 시러부러여.
 △Young-영원히 Sa-사라지기를.
 △풍 물은 개, 겨 물은 개보고 뭐라 한다.
 △전통, 노동, 그리고 강릉!
 △한번 대통령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선...
 △노태우도 전직 대통령이였다. 왜 빼놓습니까. 불쌍해요.
 △입 다치고 상동동에 처 박혀있어.
 △다시 정계에 진출하여 나라를 두 번 욱보이게 하지 말 것!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사회봉사의 의무를 주어 확실하 보통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만 SHOW해.
 △뒤 물은 개가 뒤 물은 개랑 함께 SHOW한다.
 △말이 안 나온다. 말 할 가치도 없으니까로.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않아? 목 붙어 있는 것만도 복으로 알고 짱 박혀지내... 짜샤.
 △뺑삼이 까불지마. 큰 코 다친다. 아들내미 단속이나 똑바로해. ~씨~!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으리. 노망난 노인네 심정을 이해하자!
 △우리 나라엔 그들과 같은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 여왕제로 바꾸자.
 △YS BABO
 △K뺑삼 => 뺑뺑
 △인전 사람 기본 나쁘겠수. "032"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대머리 된다면서.
 △이민들 조업 어려움 많은데 멀치 어장 잘 되는감?
 △혹시 신장원이 자네를 제자 아닌가?
 △전 대통령 아저씨들. 이젠 봉사 좀 하죠. 행동으로...
 △나라 격정하지 말고 니 아들 간수나 잘해.
 △차라리 난 평범하게 살래. 욱 안먹구...
 △백담사에 있으니가 좋죠? 계속 있고실죠? 동대 불교학부에 입학하세요!!
 △내가 졌다! 졌어!!!
 △멀치 어장으로 번 돈 좀 써 봐!
 △김영삼 왈, "경쟁을 못 살려도 내는 경합도를 살릴랍니다"

대학원 중심대학 선정 재고필요

대학간 자유경쟁 말긴 후 특성분야 지원 바람직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총 1조 4천억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학문 분야별로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한다고 한다. 본교가 3년 연속 선정되어 자랑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 대학 평가'의 경우 20개 대학 선정에 총200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은 7개 분야에 총 2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인 셈이다. 문제는 21세기에 대비하여 각 대학을 발전 가능성이나 특성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처음부터 특정 유명 대학만을 지원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공계열의 경우 과거대나 포항공대가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를 가진 특성대학임에도 교육부가 특정 유명 사립대학 동문들의 로비 압력에 못이겨 해당대학 공대에 교육예산을 지원하여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외의 밖으로 해두기로 하자. 교육부가 만약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을 일정기간 자유경쟁에 내맡기고 이 자유경쟁에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 그

런후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할때도 A대학의 전체 학과를 집중 지원하기 보다는 A대학은 문학, B대학은 물리학, C대학은 공학 식으로 각 대학의 특성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런 특성화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A대학 출신이든 B대학 출신이든 모두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정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은 자칫 망국적인 학벌 숭배 풍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명문대학들이 존재한다면 그 졸업생들이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유이다.(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가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성장하듯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대학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대학은 빈사상태로 만들려는 어떠한 음모나 시도도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교육부의 '준비 안 된' 대학원 중심대학 선정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김진정(realjeany@hanmail.net)

시와 사진



만발한 벚꽃이 꽃이며, 네가 입김으로 / 대낮에 불을 밝히면 / 환히 금빛으로 열리는 가정자리(김춘수 '꽃의 소모' 중) 사진은 서울캠 우체국앞

사진부

TEL : 22603491·2 / (0561)7702057·8 FAX : 22791270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하이텔·나우누리 ID:dgupress,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알림 만화 '최하의 세상보기'는 필자사정으로 쉽니다.

동약광장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햄볶음밥(1300) 낙지볶음(1500)
화	탕수육백반(1500) 소고기야채밥(1300)
수	연무비빔밥(1300) 어묵야채볶음(1300)
목	개맛살판조(1500) 하이라이스(1300)
금	오징어스파게티(1500) 모듬볶음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치킨가스(1300) 소고기영양탕(1500) 부대찌개(1300) 치킨가스(1300)
화	어묵잡채(1300) 오징어숙회덮밥(1300) 두부김치(1300) 어묵잡채(1300)
수	돈육계첩볶음(1500) 만두국백반(1300) 골뱅이소면무침(1500) 돈육계첩볶음(1500)
목	후랑크볶음(1300) 갈비탕(1500) 홍합살무국(1300) 후랑크볶음밥(1300)
금	김치카레라이스(1300) 참치회덮밥(1300) 사골곰국(1300) 김치카레라이스(1300)

(단위:원)

목격길

축하합니다

△현경이 생일이 5월 7일 이래요. 조금 이르지만 미리 축하해 주세요. 휴학생은 외롭답니다.

-G.I.

△호빵맨! C·C축하해요. 행복하시길...
-팬클럽 일동

수고 하셨습니다

△물리 반도체 공학부 4·19 등반 대회 수고하셨습니다.
-97 SDH

△골뱅이소면무침(1500) 돈육계첩볶음(1500)
-97 일꾼

△4·19 등반대회에 다녀오신 전통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과대 일꾼 여러분! 해오름식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참한 사장님.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시키고 국가보안법 철폐시켜주세요. 그리고 한글길게는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꽃시음

△금요일에 북한산 다녀오신 모든 동국인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정산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수형, 강일형, 규찬형, 태용형, 진성형, 영주형, 현석형,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서니

△경계 통상학부 KJK10003을 모시는 여러 학우들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합시다.
-KJK10003 교동
△대학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신입생 여러분! 그래도 힘냅시다.
-무료한 새내기

그리고...

△영희, 가영, 우리 언제 광년파티하지? 이번엔 좀 제정신으로...
-동·배 일동

△우리학교는 등산길이래요. △친구! 나 진고! 문열어! -98쓰레기 △민주야, 한영아 우리 시험 잘 보자. 아자!
-진아

온방길

축하합니다

△혜진아랑 기현 선배랑 1주년 이래요. 축하한다던 재미 한송이씩이랑 각 개인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P.S. 이게 내 선물이지롱. -정현
△함께 살지만 아직도 못다한 얘기가 많다. 지연아 생일 축하해, 우리 열심히 살자. -서니
△우리 배드민턴의 날개 잃은 천사(1004) 한규선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다시 날개를 달고 승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드민턴 쳐요.
-동·배 일동

△심묘양양 우모군의 새로운 시작을 진

심으로 축하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다 △공이와 건상선배의 백일입니다. 물이 영원하길 바래요. 정말. -싸·비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철학과 고적 문화 답사 겸 연합 M.T. 기간 동안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전라도 땅 구경 많이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미있었는데도...
-철학과 박신영 그리고 정대

△다우회 20회의 수고를 난 안다. △야성의 진짜 재주꾼 튜근우 회장님! 요즘 몸이 안좋으신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상
△하상 그대결에 아성이 있습니다 △회계학과 학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바랍니다. -LAST

알립니다

△성호 군에 가서 진주 맨날 운데요. 진주 좀 위로해 주세요.
-국문인 여러분

△내가방 돌리도! 아니 세상에 가발을 통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3년만에 복학했는데 정말 학교 다닐 마음이 없어 지는군요.
-95 김무중

열심히 합시다

△새롭게 다시 구성된 제18대 회장단, 임원단 여러분 1년동안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모두 회장님 많이 도와 드려주세요.
-호우회 왕대크림 대표
△고전음악 감상실 이쁜 15기! 고생 많다. 모두들 열심히 부지런히 새우탕 큰사발.
△진달래 4월, 핏방 광주 5월을 맞아 학생회관 윈속이 97들 힘내라. 진욱, 경애, 경민, 민경, 영인, 수대, 환이, 구민, 경희, 주연, 순연, 미진 무럭무럭 힘내고 군세게 통치길.
-슬웃

그리고...

△미정아 우리 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석이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 찾자

찬란한 불교문화 발굴에 전 동국인 참여해야

'직지인심 견성성불'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삼체요절의 핵심인 이 말은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보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직지는 1377년(고려 우왕3년)에 경한대선사께서 불법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청주 흥덕사에서 알기 쉽게 초록한 불서이다. 이 책의 원명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삼체요절이다.

직지는 불교문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인쇄한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1440~1450년)보다 70여년 앞서 인쇄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어서 인쇄문화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보다 불교가, 서양문화보다 동양문화가 독일문화보다 한국문화가 우수함을 입증해 주는 결정체이며 우리나라가 인쇄종주국이고, 5천년 문화민족임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다.

1997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1천년 동안 1백대 큰 사건을 소개하면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을 1위로, 콜럼부스의 신대륙발견을 2위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3위로 선정하여 인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금속활자의 발명인데 우리나라의 직지삼체요절이 아니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 선정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모든 문화의 요체는 인쇄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쇄인들은 동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석보상절(1447년)을 완간한 9월 14일을 인쇄문화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성대한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그러나 직지의 원본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하권 한 권만 소장되어 있다. 직지는 1887년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플랑드 플랭시가 수집해 프랑스로 넘겨진 후 도서관장이 베베르를 거쳐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

직지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박병선 박사가 1967년 한국 책속에서 발견하여 1972년 세계도서의 해 도서전에 출품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인쇄인들은 청주시민들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와 대한불교 조계종의 후

원 아래 직지의 반환과 국내 여당이 있을지 모를 또다른 직지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지를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지는 사찰에서 대선사께서 강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초록하신 것이기에 제작당시 1백권 내외가 인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장 가능성은 사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직지찾기 운동은 우리 인쇄인들의 힘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불교문화계승의 대업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와 불교종단, 불자, 정부, 그리고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한다.

직지를 찾아 인쇄장소인 청주의 흥덕사지에 건립된 현대 인쇄박물관에 소장하고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불교문화의 찬란함과 금속활자의 발상지와 인쇄종주국이 우리나라 청주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박종일(법 62졸·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경주캠 학생수 비해 컴퓨터 절대부족

1시간 기다려 이용 다반사...정보의 기쁨에 '허덕'

두주 전 경주캠 도서관 컴퓨터 실습실에 수업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실습실을 찾았다. 컴퓨터를 이용하려 온 많은 학생들이 10분전부터 미리 와서 줄을 서 있었다. 수업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조교 선생님이 나오셔서 보강이 있어서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푸념섞인 원망이 나오고, 나도 허탈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나서야 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역시 같은 시간에 컴퓨터실을 찾았더니 또 보강이 있단다. 모여있던 학생들은 다음 한시간의 공감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기다려야 했다.

경주캠은 학생 수에 비하여 컴퓨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보검색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분·1시간이라도 다리 아픈걸 참아가며 기다려야 한다. 가까스로 맡은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배고픈 것도 참으며 할 일을 다 마치고 일어서야 하며 그나마도 자리를 잡는 건 몇 학생들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주와 지난주에는 신입생 도서관 투어까지 실시되 더욱 복잡하다. 컴퓨터가 좀 여유가 있는 3층 실습실을 이용하려 가면 보강이다. 시스템잠사다. 재취업대상자 교육이다 해서 이용가능한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컴퓨터실을 저녁 7시까지 개방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것도 재취업교육 때문에 이용가능한 때는 월요일과 금요일 단 이틀뿐이었다. 원호관과 진흥관에 설치된 각 2대의 정보검색기는 작동되는 날 보다 작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고, 학생회관 정보검색기는 두세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심심하게 보게 된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 온방골 1만 학우는 정보의 기쁨에 허덕이고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도 절대 부족하고 그것도 전공서적은 70년대, 80년대 조판된 책(행정학 전공 서적을 볼 때)이 대다수이다. 컴퓨터로 정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책을 뒤질 수도 없고 우리의 앞에 대한 욕구는 과연 어디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방골 학우들은 꼬박꼬박 PC작업으로 레포트를 제출하고 있으며 날로 E-mail사용자는 늘어나고 있다.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실이 없다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글이 떠오른다.

장연순 (법정대학 행정학전공3)

주인의식으로 애교심 가질 때

학교 시설물 중 위생설비의 하나인 화장실에서 간혹 휴지를 번기속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학교의 휴지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버려질 때 막힐 가능성이 많다. 또한 종이컵, 휴지, 캔 등의 쓰레기를 먹는 곳에 그대로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청소원들의 말을 빌리면 "대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생만도 못하다" 라고 한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저 책을 더 많이 읽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바른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국인들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해 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박물관을 보려고 들어가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마중을 한다.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불교 관련 소장자료와 유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

전시장을 마련했으나 문화를 알리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아주 미흡해 보였다. 대학내에 있는 박물관이지만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할 만한 분위기가 못되는 것 같다. 가령 조명 시설과 배치를 바꾸거나 개선하면 어떠한가? 유물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하면 어떠한가? 방문록을 만들어 소감을 적으면 어떠한가? 우리의 위대한 선조의 땀과 혼이 담긴 문화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곁에서 숨쉬게 하려면 담당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방식이 아쉬웠다.

정중하(서울캠 동국관 보일라실 근무)